

반복되는 실패를 막아라

사사기 2:11-23, 마태복음 12:25-29

최정웅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안타깝고 끔찍한 사고 소식이 많았다. 레미콘 트럭이 뒤집어져서 난데없이 옆 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덮쳤다. 차에 있던 세 명의 여성이 꼼짝도 못하고 압사했다. 어느 도시에서는 고층아파트에서 어린아이가 벽돌이 땅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려고 떨어뜨렸는데 나뭇가지를 맞고 튀어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아주머니의 머리를 때려 죽게 만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두고 날벼락이라고 표현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 이런 일을 일컬어서 재앙이라고 한다. 이름을 거명해서 미안하지만, 김정문 알로에 회사 사장님에게 외동아들 늦둥이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다. 그런데 그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다. 신발 하나도 찾지 못했다. 흔적도 못 찾으려 가다가 되 버렸다. 수백 명이 죽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수대교를 건너는 중에 한 토막이 떨어졌지 않다. 수십 명이 죽었다. 내가 일으킨 일도 아닌데, 나에게 닥쳐와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 현상들이다. 어제도 우리 김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이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임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더라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성경에 보면 이 재앙이 닥쳤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우상숭배를 오래한 현장, 종교생활에 찌들어 있는 현장을 보면, 어느 날 이런 문제가 닥쳐온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반복해서 찾아온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반복된 재앙과 저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대적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략질을 하며 노역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냥 잊었지만, 이것을 당하는 모습은 정말 처참했던 것이다. 전쟁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 오면 여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아이들은 살해당한다. 모든 것은 빼앗기고 삶의 터전은 무너진다. 우리 한국 역사도 이처럼 침략과 고난이 반복되어 왔다. 우리 후대에게 이 문제가 닥쳐오면 절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오는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1.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반복되는 문제가 온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1) 첫 번째 원인이 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우상이다.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다 우상이다. 하나님 대신 돌로, 나무로, 흙으로, 그림으로, 뭔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 아닌 버려진 모양의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물론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다.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된다.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셨다.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는 것이니까 반드시 귀신에게 잡히게 되어 있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 왜 거기에 따라가는가? 우상이 문화화되어서 후대의 마음과 육신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게 우상숭배의 문화가 강력하게 우리 후대를 파고들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른들은 잘 모르고 있다. 공부 안 하면 영적 문제고, 공부 잘 하면 서툰척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문화 속에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본인들도 거기 휩쓸려 가고 있다.

(2) 이렇게 우상이 달콤하게 현장과 후대를 파고들어오는데, 정작 어른들과 후대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복음으로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다고는 하는데, 굳게 붙잡지 않고 대충 기억하는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다. 교회에서만 간신히 복음을 듣고, 현장 가서는 복음 체험으로 살지 않는다. 복음과 상관없이 인본주의로 살아간다. 그런 것이 후대에게 전부 전달되니까, 한두 세대가 지나가면 복음이 종교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멋있게 포장되어 있는 귀신 문화를 못 넘어서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기도의 응답도 보았고 기적도 이적도 다 보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았다. 얼마 가지 못했다. 여러분, 피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애급에서 해방되었나 하는 것이 체험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그랬다더라’ 하는 정도로 전달되었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몇 십 년 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이야기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3)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방 나라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다.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하라고 그런데 우상 나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정작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놓쳐 버렸다. 우리 잘 살게 하려고, 우리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자기들끼리 복음 잘 붙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정복하지 않으면 점점 정복을 당하게 되어 있다. 복음화를 하라고 했더니 복음화를 못 시키다가 세속화가 되어 버렸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잠깐 동안 그렇게 되어 버린다. 복음을 체험하려면 불신자 상태를 실제로 봐야 하는데, 이것을 전도현장 아니면 못 보지 않나? 그런데 전도가 상실되니까, 전도 현장에 안 간다. 현장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런 일이 있냐.’ 그러다. 복음이 이론만 남는다. 그러니까 복음도 약화되고 현장은 원수들에게 다 빼앗겨 버린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복음과 전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 사사기다.

(4)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 없이 성공하면 그것이 진짜 저주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다. 그래야 복음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샅2:22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남겨 두시고 쫓아내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복음과 전도를 놓치면 재앙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사사기 때만 그런가? 지금 이 세상이 딱 그렇다. 그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하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사가야 주의 부름을 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전도자,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2.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1) 가장 먼저 첫 번째 열쇠는, 복음을 굳게 잡는 것이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말이다. 우리가 일곱 램넛트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확실히 붙잡으면 환경이 상관없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장소도 시간도 상관없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가? 각인을 바꿔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한다. 후대 이전에, 후대에게 각인시키기 전에, 나 자신부터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체험한 만큼, 내가 누리는 만큼만 전할 수 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우리교회는 부흥이 되겠는가,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후대 길러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겠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 우리들 가운데 브리시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다면, 아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대로 보고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나도 있으면 다 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못 봤다.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복음이 분명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린다. 후대 이전에 우리 자신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복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후대 이전에 우리 자신의 각인을 전부 바꿔야 한다. 이전 것은 치유받고, 새롭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 전쟁이라는 말을 쓴다. 복음 아닌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몇 십 년 동안 쌓여왔다. 염려가 쌓여왔다. 믿음은 어디 가고 염려 근심만 쌓여왔다. 집에 가서 TV 틀면 나오는 것이 다 이런 것 아닌가? 복음 아닌 사상과 종교가 뉴스에서 나오고 드라마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각인시키고 있다. 우상 문화가 노래 가사를 타고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 후대에게 각인되고 있다. 이것을 치유하는 각인의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는가. 각인을 바꾸는 중요한 전쟁이 시작되어야 한다. 복음이 각인되어야 한다. 확실해야 한다.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2) 두 번째는, 이것을 개인적으로만 하면 지속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곳곳에 세워야 한다. 곳곳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는 성막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곳곳에 도피성을 아홉 군데 세우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흩어져서 살며 백성들을 돕게 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영적인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곳곳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가. 레위인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도록 시스템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놓치고 자기 먹고 사는 것 챙기는 데 급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와 재앙을 베풀같이 받게 되었다. 이러면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반드시 지역지역에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구역, 다락방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교회를 세워야 한다. 미

선 흠을 곳곳에 세우고 복음을 나누고 포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은이 안부를 물었더니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다. 주은이가 김대중 선교사님 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램프를 맡길 수 있다. 세상은 험하다. 곳곳에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처소가 있을 때 살 수 있다. 그래서 주은이가 그리로 들어갔는데 너무 잘 한 것이다. 김 선교사님 만나면 나는 또 감사하고 부탄할 것이다. 도피성 만드는 것을 절대 놓지 않으면 된다. 도피성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희미해지고 다른 문화는 창궐해 있다.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얼마나 분명해야 되겠는가. 도피성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얼마나 분명해야만 이 일을 지킬 수 있겠는가.

(3) 세 번째, 정말 우리가 최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우리 후대들이다. 애들 잘 키우자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다. 적당히 해서는 절대 전달 안 된다. '이만 했으면 됐지.' 벌써 있어버린다. 그렇게 분명하게 암송했다는데도 1년이 지나가기 전에 반 이상 있어버린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하다. 팀 사역 강사를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훌륭한 분인데 자꾸 무너지고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사모님을 보고, "여보, 우리가 다시 합숙을 갑시다. 방장 말고 정식으로 돈을 내고 다시 갑시다." "그래요, 그럼시다." 부인과 함께 같이 가서 합숙을 받은 것이다. 중요한 어떤 요원은 자기가 합숙훈련을 열 번 갔더니 귀가 열리더라고 했다. 그래서야 그때까지 각인되었던 것들이 빠져나가고 복음이 이해되어서 각인되어 오더라는 것이다. 너무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으니 삶으로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것이다. 아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 지와 덕이 겸비되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그런 분이 한 분만 나와도 된다. 다 남의 눈치만 보면서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논쟁이 무작자 무능력자만 기독교인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요셉은 노예이면서도 훈련을 받았다. 정식으로 무지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살았다. 그래서 환경을 핑계대면 안 된다. 시간도 핑계에 불과하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걸고 뛰고 있지만, 우리 세대에 다 끝내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세복이 잘못된 것이다. 바울은 당대를 넘어서 250년 뒤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준비했다. 그 250년 동안에 핏박은 말할 수 없었다. 10대 황제가 박해를 했다. 그것을 이기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바울은 순교했다. 유대 종교, 헬라 철학, 로마 권력과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후대를 세워놓고 순교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우리 태영아부부부터 유치부, 유치동부, 종교동부, 대학청년들 속에서, 이 교회를 지켜갈 후대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렇게 훈련시켜야 한다. 과연 아이들이 우리 믿음, 우리 헌신을 본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생각을 해 보라. 당장 우리 아이를 넘어서, 우리 후대, 그 후대의 후대가 일어나 세계복음화를 위해 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을 준비해야 한다. 한 순간도 우리 후대에게 복음 아닌 다른 사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예배 속에서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현장 시스템 속에서 램프를 살리게 되기를 정말 축원한다.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가르쳤다. 여섯 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었다. 십일조를 끝까지 잘 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가 자랐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아이가 자라면서 보면 그것을 자기도 전수받게 된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을 떠났는데, 그 후에 고향에 인사하러 가면, 할머니가 꼭 그렇게 하셨다. 온종일 일을 하시다가도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서는 내 손을 잡으셨다. 그러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친척들과 어르신들 집을 돌며 인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았는데, 지금도 내가 백부님, 숙모님을 만나면 큰절을 하며 인사한다. 반드시 적더라도 용돈을 드린다. 한 번도 최정용 목사는 예의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할머니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셨지만, 그렇게 나에게 전달해 준 것은 나에게 잊혀지지 않고 몸에 배었다. 그것이 각인이다.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그분에게 배웠다. 십일조 하는 것을 배웠다. 네 가지 헌금하는 것은 류광수 목사님께 배웠다. 그 말을 계속 하시는데, 다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내가 총회장을 할 때였다. 복음운동하는 지도자로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뭔가 해서 시작했는데, 안 굶어죽고 살아있다. 어떤 때는 70%를 드렸다. 그러나 한 번도 공해된 적이 없고 남에게 손을 빌린 적이 없다. 사무간사, 재정부장이 다 안다. 한 번도 가불을 받거나 남에게 뭔가를 빌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있다면, 반드시 십일조를 해야 한다. 섬기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명절에는 인사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지금도 고향에 가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그 후에는 고향 교회를 찾아가다.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고마우니까, 후배 목회자들인데도 찾아가서 인사한다.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너무 당연한 것들이 안 되니까 필요한 것도 못 하게 되고, 절대적인 것은 흉내도 못 내는 것이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모든 램프가 말씀운동 속으로, 공예배 속으로 인도받도록,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생을 걸고 헌신하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태영아부 엄마들이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이런 일이 있겠

가.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보면, 나는 눈물 이 나도록 감사하다. 이제 뭔가가 나올 것 같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내가 살아서 주역 된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있어버리지 않도록 지속하시기 바란다. 일심, 전심, 지속이 그래서 중요하다. 다른 데서 여기로 이사해서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을지를 보고, 기도하며 후원하고 도와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중직자의 일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과 우상 문화를 무너뜨릴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 일을 할 주역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계신다.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사랑교회 중직자, 모든 성도가 바로 그런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렇게 소원하고 계신다. 거기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른 교회와 똑같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 세계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싸울 제자를 주님은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일을 할 사사를 준비해서 세우셨다. 사사가 세워져서 복음을 회복하면 시대가 살아났다. 이 사사가 없는 시대에는 재앙이 몰릴 듯 닥쳐와서 문제가 반복되고 멸망을 당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다. 루터, 칼뱅, 휘트필드, 무디 같은 전도자가 일어났을 때는 시대가 살아났다. 이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세계가 뒤흔들리는 복음운동이 일어났다. 그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복음이 전 세계 교회에서 상실되어 버렸다. 유럽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한국 국회의원이 영국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당을 기존에 이미 있는 교회 건물을 임대하려고 했다. 그래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자기들이 유지가 안 되니까 돈 많이 주는 곳으로 다 임대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와서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영국 교회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가 임대해서 예배드린 교회 건물이 모스크로 바뀌게 되었어요." 무슬림 사원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교회들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런던이 회교로 거의 넘어가 버렸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무슬림들이 한국을 아시아 무슬림화의 메카로 삼겠다고 잡아먹겠다 해서 공약을 하고 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복음 가진 자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는가. 현직 국회의원이 교회에 와서 직접 간증한 내용이란 말이다. 지금 대학마다 큰일 난 상황이다. 장학금을 줘서 한국에 유학을 보내 놓고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지도할 이مام을 받아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더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 할랄 푸드라는 것을 아예 공장까지 세워서 만들게 한다고 한다. 경제에 도움 된다고 하니까 정부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연약하고 배경 없는 우리를 불러서 복음운동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가 이 혼란한 재앙 시대 살릴 사사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 말이다. 겁이 나는가? 안 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란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충만하시며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고 계신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중직자 여러분은 지역에서 직장에서 이 사사가 되시기 바란다. 우리 램프들이 초중고대학 현장의 사사가 되시기를 바란다.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사로 세워지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오늘 저녁부터 집중합숙이 시작된다. 노회 안의 17개 교회가 참여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다. 오늘도 받아준다고 한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훈련을 받고, 제대로 교회를 지키고, 이 복음을 사수하시는 것이다. 아직도 훈련 안 받은 사람, 아직도 희미한 사람은 다시 지원해라. 믿을 만한 강사분이 선다. 정말 은혜 받으시기 바란다. 반복되는 실패를 막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실패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 하기를 원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복음을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권세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